Rei Kawakubo의 디자인에 내재된 일본의 미의식에 관한 연구

김 영 선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n the Japanese Aesthetic in the Rei Kawakubo's Design

Kim Yonson

Dept. of Clothing &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background to the rise of Rei Kawakubo, a Japanese designer who achieved fame by suggesting the concept of deconstruction and recombination of clothes, and to look at environment of the time,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her design and the Japanese aesthetic sense inherent in her design.

As the method of research, collections that Kawakubo unveiled over the past 10 years starting in 2004 were examined, and a survey of the literature was conducted to describe the background of her growth and the Japanese aesthetic sense inherent in the design.

According to the study, Kawakubo grew up in the ruins of a war, and went through a time of great tumult, when Western culture was mixing with Japan's traditional culture. She taught herself a method of creation involving the deconstruction of clothes, and their recombination. For this reason, her design from the beginning was inevitably focused on deconstructing clothes before they could be recombined. Through analyses of her collections, it was found that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her design were characterized by asymmetry, incompleteness, humor and hybridity.

Kawakubo created clothes under the influence of an ethnicity that was shrouded in individuality and a traditional aesthetic sense, and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her design defined by asymmetry, incompleteness, humor and hybridity were closely related to the hybridity represented by Wabi (와비), Yugen (유겐), Okashi (おか시) and Zakyo (雜居).

Corresponding author: Kim Yonson, Tel. +82-2-2077-7129, Fax. +82-2-2077-7324
E-mail: kiyoso@sm.ac.kr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Research Grants 1-1309-0013.

Key words: asymmetry(비대칭), Comme des Garçons(콤 데 가르송), hybrid culture(잡종 문화), Japanese aesthetic(일본의 미의식), Rei Kawakubo(레이 가와쿠보)

I. 서론

1. 연구 목적

세계 패션의 역사는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킨 나라에 의해 주도되어 옷의 형태, 문양, 직조, 재단 방법 등이 발달되었고, 이러한 내용은 점점 많은 사람들의 수용과 함께 세계로 확산되며 패션에 관한 다양한 기준과 유행을 만들어 냈다.

17세기 중반 유럽의 강력한 국가로 등장한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태양왕으로 불리며 베르사이유 궁전에서 지방 영주와의 파티를 통한 왕권 강화 전략과 함께 궁정문화를 꽃피웠고, 이를 통하여 고관대작의 화려한 차림새에 관한 복식의 기준이 마련되며 직물 산업이 크게 발전되었다. 루이 16세 시대인 17세기 말에는 앙투와네트 왕비의 의상이 전 유럽에 확산되며 상류사회에서 살롱문화를 즐기는 여성들 차림의 기준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19세기 초 자카드 직기를 발명한 프랑스의 조셉 자까(Joseph Jacquard)는 다양한 색상의 직물 직조에 혁신을 불러일으키며 프랑스 오프 꾸뛰르의 화려함을 탄생시키는 근간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프랑스의 주도적 발전은 인체의 곡선에 적합한 재단 방식과 봉제 기술을 겸비한 파리 패션의 우아함을 내세우며 20세기 중반까지 이어졌고, 비오네(Vionnet), 샤넬(Chanel), 디올(Dior), 지방시(Givenchy) 등 세계적인 꾸뛰리어를 배출하였다. 세계의 많은 여성들은 이들이 만들어 낸 디자인을 동경하였고, 패션 전문가들도 이들에 의해 만들어진 재단 방식과 제작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신뢰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패션 교육의 모범과 교본으로 활용되며 세계 패션의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모더니즘의 부정과 함께 태동된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상과 다원성을 정당화하는 시대적 조류

의 여파로 1970년대 중반부터는 패션계에도 이전의 기준과 방식에 대항하며 새로운 복식 개념을 주창하는 시도가 비주류를 이루던 영국, 미국, 일본 등지에서 발생되었다.

레이 가와쿠보(Rei Kawakubo)는 이 시기에 등장한 일본 디자이너로서, 과거 몇 백년간 프랑스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유지되어왔던 서양 복식에 관한 개념과 제작 방법을 탈피하여 전혀 다른 방식의 패션을 전개하는 디자이너 중 한 명으로 주목받고 있다. Kawakubo는 그 이후로 자기만의 창작 방법을 고수하였고, 지금은 세계적인 명성과 함께 독보적인 창작성을 인정받으며 전 세계의 대도시 어디에서나 그녀가 디자인한 옷을 살 수 있을 정도의 글로벌 디자이너가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Kawakubo가 그런 디자이너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Kawakubo가 대학을 졸업하고 패션계에 입문할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패션계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 당시 Kawakubo 디자인의 특징은 무엇이었는지 밝혀보고자 한다. 둘째, 지난 10년간 그녀의 컬렉션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디자인의 경향과 조형적 특성은 무엇인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셋째, 일본에서 태어나 자국의 사상과 문화의 영향을 받아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된 Kawakubo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에 내재된 일본의 미의식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와 특징을 갖는지 밝혀보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이 연구의 주요 개념은 시대의 사조에 대항하며 독자적인 창작 세계를 만든 Kawakubo의 디자인에 내재된 일본의 미의식을 밝히는데 있다. 일본인으로 태어나 일본에서 대학까지 교육을 받은 Kawakubo의 디자인에는 환경의 조건과 시대의 흐름에 의해 축적된 민족적인 미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그 내용

을 밝히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Kawakubo가 대학에서 철학과를 졸업한 후 ‘꿈 데 가르송(Comme des Garçons)’이라는 브랜드를 만들던 1960대의 시대적 사조를 살펴보고, 패션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은 철학도가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형성된 디자인 방향과 그 당시 새로운 패션 사조를 형성한 디자이너들의 디자인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둘째, ‘Comme des Garçons’ 디자인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조형적 특성을 발체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발표된 디자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 기간은 2004 F/W부터 최근에 발표된 2014 S/S 컬렉션까지 20시즌으로 한정하였다. 그 이유는 이 기간에 발표된 모든 디자인은 미디어 매체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이전 시대에 보도된 선별적 자료들은 편협성과 임의성에 의해 선택되어 편중된 분석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분류된 조형적 특성을 연구 중심으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녀의 디자인에 내재된 일본의 미의식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와 특징을 갖는지, 문헌 조사에 의한 과거의 조명을 통하여 귀납적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의의는 한 나라의 미의식이 디자이너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세계적으로 어떻게 조형적으로 차별화될 수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독자적인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제시하는데 있다. 아울러 자본과 마케팅 전략의 중요성을 앞세우는 글로벌 시장의 환경 속에서도 민족적이면서 창의적인 디자인을 내세워 세계적으로 성공한 Kawakubo 디자인의 실체를 살펴보고, 창작 세계의 뿌리인 미의식을 문헌적 고찰을 통하여 귀납적으로 규명한다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II. 이론적 고찰

1. 일본의 시대적 환경과 Rei Kawakubo의 데뷔

사람은 태어난 땅에서 자라 교육을 받고 그 사회

와 문화의 영역 속에 거주하면서 점차 민족성을 갖게 되고, 각 개인은 한 시대의 환경 속에서 자율적인 선택과 함께 생래적으로 겪는 일들의 영향이 축적되어 개성을 갖게 된다. 그리고 민족성은 긴 역사를 통하여 통시적으로 형성되어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각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개성의 형성에 간섭하게 된다.

따라서 한 개인은 민족성이란 굴레 속에 거주하며 시대적 사조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고, 한 나라에 소속되는 디자이너 역시 개성으로 포장된 민족성과 전래된 미의식의 영향 하에서 창작을 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Kawakubo는 일본의 민족성과 시대의 사조에 의해 탄생된 디자이너라 할 수 있다.

Kawakubo는 일본의 산업혁명 시기라 할 수 있는 메이지시대(明治時代: 1868-1912) 이후 서구로부터 마구 유입된 문화와 일본의 전통 문화가 뒤섞이며 혼란을 겪던 1942년에 출생하였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과 함께 아육에 종지부를 찍으며 패전을 시인하기 3년 전인 전쟁 중의 격변기에 태어나, 도시의 많은 곳이 파괴되는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하며 폐허 속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22세가 되던 1964년 게이오대학 문학부 철학과를 졸업, 아사히카이세이 케미컬(旭化成化學)회사에 입사해 홍보를 담당하는 선전부(宣伝部)에서 3년간 근무한 후, 프리랜스 스타일리스트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스타일리스트로 활동했던 1968년, 광고사진 촬영에 필요하다고 여긴 의상을 찾지 못해 스스로 옷을 만들며 스타일리스트에서 디자인, 패턴, 봉제 등을 직접 다루는 디자이너가 되었다고 한다(“Rei Kawakubo” 2013).

Kawakubo는 정규 교육기관에서 디자인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불과 1-2년 사이의 기간에 스스로 옷을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과정을 습득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2년이란 짧은 기간의 독학기간 동안 Kawakubo는 패턴 제작이나 드레이핑 기술을 활용하여 옷을 만드는 방법을 습득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옷을 분해하고 변형하여 재조합하는 방식을 배운 것이다.

Kawakubo의 창작 세계는 이미 시작에서부터 기존 방식이나 규범을 따르며 옷을 제작하는 방법보

다, 기존의 옷을 분해하고 연구하며 새롭게 조합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방향성을 띠고 있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보다는 ‘유’를 변형하여 또 다른 ‘유’를 창조하는 방식이었던 것이다. 본인의 의지가 기존의 질서에 대항하며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였지만, 짧은 수학 기간에 형성된 지식의 깊이로 보아 Kawakubo가 선택한 창작 방식은 자의적이면서도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1969년 ‘Comme des Garçons’ 브랜드를 만들고, 1981년 파리 컬렉션에 참가하기 전까지의 디자인은 그리 파격적이지 않았다. Figure 1과 같이 상의의 품이 넓은 반면 소매는 짧고 타이트하며 치마 밑에 레깅스를 착용한 후 또 스커트를 덧입거나, Figure 2처럼 재킷의 밑단을 불규칙하게 제작(Elgort, 1982), 또는 Figure 3에서의 1984 F/W 디자인처럼 소매 부분을 비대칭 되게 만드는 정도였다(Fukai, 2012). 세 디자인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은 인체 곡선을 살리는 서양 방식보다는 동양 전통의 직선에 의한 평면적 패턴 방식을 고집했다는 것이다.

2. 1960년대의 세계 사조와 패션의 특성

2차 대전이 끝난 후 폐허로 변해버린 도시 속에서

많은 사상가들은 그 시대를 지배했던 사상과 이론을 되새기며, 산업혁명의 부흥과 함께 이상적 삶을 가져다 줄 것이라 기대했던 모더니티 사회가 결국 사상의 대립으로 치달게 된 환경에 대하여 회의를 갖게 되었다.

전후 야기된 노동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여성의 사회 참여가 가속화되며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전통에 변화가 발생되었고 여성들도 활동성을 고려해 남성처럼 바지를 착용하기 시작하였으며, 근대화의 기치 아래 전통문화가 도처에서 붕괴되며 생활과 복식 문화에 있어서 획일화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일본에서 겪으며 성장한 Kawakubo가 패션계에 입문하여 창작 활동을 시작했던 1960년대 후반에는 모더니즘의 모순성에 대항하며 이를 극복하려는 사상운동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생되었고, 그 중심에는 후기구조주의자로 대표되는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가 있었다.

Barthes는 1953년 ‘글쓰기의 영도 [Writing Zero Degree]’에서 모더니즘의 지주였던 구조주의를 비판하며 후기구조주의의 토대를 만들었고, 1967년 ‘작가의 죽음 [The death of the author]’에서는 “정확한 공식과 의도를 갖고 있던 구조주의와 모데

Figure 1.
Comme des Garçons,
1975-1982

- www.natsume-books.com

Figure 2.
Comme des Garçons,
1975-1982

- www.natsume-books.com

Figure 3.
Comme des Garçons,
1984 F/W

- Future Beauty, p.36

니스트들의 작품은 이제 작가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독자를 통해서 새롭게 해석”(C. Choi, 2006, p. 130)된다며 일방적인 제시에 의한 일원성을 탈피하여 다양한 해석과 사고가 타자에 의해 가능함을 주시시켰다. 그리고 Derrida는 1967년 ‘그라마톨로지’에 대하여 [Of Grammatology]와 1972년 해체 [The Dissemination]에서 해체, 탈구축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주장하였다.

해체론으로 잘 알려진 데리다는 모더니즘의 로고스 중심적 사상체계, 즉 형이상학적 철학 전통이야말로 특정 시대의 사회체제를 절대화시키려는 허구적 이데올로기 산물이며 해체(déconstruction)만이 계몽의 다양한 유산을 재해석하고 여과시켜 문화를 새롭게 구성하는 길이라고 하였다. (M. Kim, 2013, p. 455)

그리고 Derrida는 차연(Différance, 差延)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우리가 전통적으로 전제해온 올바른 시작, 출발의 절대적 시점 등 바로 이런 말에 대한 우리의 개념” 그리고 이와 더불어 “우리가 전통적인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칙이나 통제 원칙의 가장 근원적 원칙 자체에 대한 가치를 문제시”(Derrida, 1972, p. 125)하며 우리가 믿었던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고 잠정적이며 언제든지 의미가 유보되어 다른 장소에서 새로운 형태와 의미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후기구조주의자들의 다원성에 의한 다양한 가치 추구가 정당화되는 시대적 조류의 여파로 1970년대에는 패션계에도 유럽의 오랜 역사와 함께 형성된 패션의 사회적 규범과 제작 방식에 대항하며 새로운 복식 개념을 주창하는 시도가 발생되었다. 1960년대까지 지켜져 왔던 의상의 완성성이나 균형적인 미적 감각, 옷을 착용하는 방식 등에 대항하며 옷을 미완성 상태로 제작하거나 해체해서 재조합 또는 구멍을 뚫어 훼손하거나 전위적인 방법으로 착용하는 등 패션에 혁신적 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반항적 시도는 1960년대 후반 보수적 이념에 대항하고 베트남 전쟁 참여를 반대하던 미국의

히피 집단에서 가장 먼저 등장되었다. 주디스 클랜시(Judith Clancy)(1974)가 발간한 『Native Funk and Flash』에는 1970년대 히피풍의 수공예적인 디자인이 대거 수록되어 있다. 그중에 Figure 4는 미국의 디자이너 빌리 보워스(Billy Bowers)의 디자인으로서, 금색 가죽위에 다양한 문양과 칼라 부위의 털이 비대칭적으로 배치되어 장식되었고, 옷의 밑단, 칼라, 소매 끝이 마무리되지 않고 자른 형태가 그대로 드러난 미완성적 디자인이다.

영국에서는 1970년대 후반 경제적으로 무력했던 젊은 펑크 집단이 형성되어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었다. Figure 5는 이러한 젊은이들의 반항을 대변했던 영국의 펑크 록 그룹 섹스 피스톨즈(Sex Pistols)의 티셔츠이다. 이 그룹의 매니저였던 말콤 맥라렌(Malcolm McLaren)과의 친분 덕에 스타 일링을 담당했던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가 1977년 만들었다. 기존의 옷을 뒤집어 잘라 해체한 후 솔기를 밖으로 드러내며 의도적으로 깔끔하지 않게 다시 꿰매 재조합한 디자인으로서, 반국가적인 문구와 영국 국기를 같이 프린트하여 사회적 인습과 권위적 통념에 반대하는 반사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시대에 기존의 통념에 대항하며 해체의 개념을 의상 전체에 도입한 디자이너는 영국의 잔드라 로즈(Zandra Rhodes)로서 Figure 6은 전시 형태로 발표된 「Jersey dress」이다. 왼쪽 검정드레스는 가슴, 소매 및 노출이 금기시되었던 허벅지에 구멍을 뚫고 핀과 체인으로 고정하였고, 흰색드레스는 옷을 분해하여 재조합하고 많은 구멍을 뚫어 살이 보이게 하였다. 세 번째 드레스는 어깨와 팔에 구멍을 뚫어 체인과 함께 장식하였고, 허리에는 리본과 빨강 저지를 비대칭 되게 체인으로 걸어 고정한 디자인이다.

Figure 7은 「Punk Wedding Dress」라고 명명된 디자인으로서 순백의 순결함과 우아함으로 대표되던 기존의 웨딩드레스에 대한 통념에 대항하며 찢어 분해하고 구멍을 뚫어 미완성을 완성으로 내세운 ‘해체’ 개념의 디자인이다.

Figure 4.
Billy Bowers' Design, 1974
- <http://sweetjanespopboutique.blogspot.kr>

Figure 5.
Vivienne Westwood, 1977
- <http://espacio-blanco.com>

Figure 6.
Zandra Rhodes, 1977
Jersey dress with torn raw edges
- <http://starsweare.com>

Figure 7.
Zandra Rhodes, 1977
- *Dictionnaire de la Mode au XX Sciele*, p.582

Figure 8.
Comme des Garçons, 1981
- *Icons of Fashion The 20th Century*, p.127

Figure 9.
Comme des Garçons, 1982
- *Women of Fashion: 20th-Century Designers*, p.186

이러한 반항적인 디자인이 유럽에 확산되던 1981년 Kawakubo는 처음으로 파리 컬렉션에 참가하여 Figure 8과 같이 여러 조각의 밴드를 겹쳐 덧대며 솔기를 밖으로 나오게 마감하고 어깨를 노출시키며 옆구리와 바지에 구멍을 낸 미완성된 디자인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하여 Kawakubo는 사람들에게 옷이

반드시 완성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과 인공적으로 낡게 만든 소재로도 아름다운 옷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켰다(Shimizu & NHK, 2005). 그리고 1982년에는 Figure 9와 같이 '히로시마 시크'라고 야유를 받던 구멍 뚫린 「Lace Sweater」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디자인들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여러 디자이너에 의해 시도된 개념으로서 Kawakubo의 창의성이나 독창성에 의한 디자인이라기보다는 시대의 조류에 편승한 유사 디자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Kawakubo는 파리 컬렉션에 참가를 거듭하며 이러한 초보적 디자인에서 벗어나 일본의 미의식을 바탕으로 독보적인 창작 세계를 구축해 냈다.

III. Rei Kawakubo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

1969년 Comme des Garçons이라는 브랜드를 만든 후 Kawakubo는 무려 44년간 브랜드의 책임디자이너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유행과 사조가 바뀌었지만 Kawakubo는 개성과 민족성에 기인한 독특한 창작 세계를 유지해왔다. 수많은 디자인을 만들어낸 Kawakubo의 창작 세계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컬렉션을 분석한 결과 Table 1과 같이 비대칭, 미완성이나 가변성을 내포하는 미완료, 해학적 요소를 띠는 골계성, 잡다한 요소들이 뒤섞이거나 병치되는 잡종성의 형태가 거의 매년 등장되었다.

예외적으로 2012년 F/W에서는 다른 시즌과 달리 미완료의 디자인이 없었고, 평면적인 실루엣에 카무

플라주, 꽃, 물방울, 표범 무늬 등을 잡다하지 않고 정갈하게 넣은 특징을 띠고 있었다. 뉴욕 타임스의 기자 캐시 홀린(Cathy Horyn)이 그 이유에 관하여 Kawakubo와 나눈 인터뷰에 의하면, 2012 S/S 컬렉션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기에 이를 탈피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디자인을 하고 싶었고, 그 방법으로써 자신의 생각으로 ‘디자인 하지 않는 것이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며 의도적으로 ‘자기의 감정을 넣지 않고 컬렉션을 만들었기 때문이라 한다(“Rei Kawakubo”, 2012). 그 외의 시즌에서는 Kawakubo의 디자인 특성을 나타내는 네 조형적 특성이 지속적으로 중첩되고 교차되며 창작 세계를 대변하고 있었다.

1. 비대칭(非對稱)

기존의 옷을 해체하여 패턴의 연결 순서나 크기를 변형시켜 다시 조합하는 방식으로 창작을 시작한 Kawakubo의 디자인에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조형의 특성은 비대칭이다. Table 2의 04 F/W, 05 F/W, 06 F/W, 07 S/S, 07 F/W, 09 F/W, 11 F/W 디자인에서처럼 Kawakubo는 기존의 재킷을 해체하여 왼쪽 부위는 온전히 전면에 드러내지만 오른쪽 부분은 해체된 조각의 일부분만을 남기고 거의 제거하는 방식으로 디자인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1. Repetitive Plastic Elements of Design on Kawakubo's Collections from 2004 F/W to 2014 S/S

Season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Characteristic	F	S	F	S	F	S	F	S	F	S	F	S	F	S	F	S	F	S	F	S	
Asymmetry	○	○	○	○	○	○	○	○	○	○	○	○	○	○	○	○	○	○	○	○	
Incompleteness	○	○	○	○	○	○	○	○	○	○	○	○	○	○	○	○	X	○	○	○	
Humor	○	○	X	○	○	○	○	○	○	○	○	○	○	○	○	○	○	○	○	○	
Hybridity	○	○	○	○	○	○	○	○	○	○	○	○	○	○	○	○	X	○	○	○	

대부분의 복식은 인간의 대칭적인 인체에 적합하도록 패턴을 만들어 재단하고 봉제하는 방식으로 고안되어 발전되어왔다. 일본의 전통 복식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발전되어 기본적인 복식의 형태는 대칭성을 이루고 있다. 반면 옷 위에 장식되는 전통적 문양은 상하, 좌우 비대칭의 균형미를 추구하며 발전되어왔다는 특수성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근대화와 함께 유입된 서양 복식의 여파로 오늘날에는 전통 복식에서 보이던 회화적 비대칭성은 거의 사라진 반면 Kawakubo의 디자인에는 이를 대신하는 형태에 의한 비대칭적 균형미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본 결과, 04 F/W, 05 F/W, 07 S/S, 08 F/W의 컬렉션에서처럼 기존의 옷을 분해하여 한 쪽 부분만을 남기거나 다른 옷의 일부와 재조합하는 해체적 비대칭, 05 S/S, 06 S/S, 09 S/S, 09 F/W, 10 S/S, 13 F/W에서처럼 한쪽 부위에 조

형 요소를 덧붙이거나 반대로 일부는 생략하는 방식의 장식적 비대칭, 06 F/W, 07 F/W, 11 S/S, 11 F/W와 같이 서로 다른 종류의 아이템을 교차시키거나 반씩 병치시켜 낯선 형태를 만드는 혼종(混種)의 비대칭, 08 S/S, 10 F/W, 12 S/S, 12 F/W, 14 S/S에서처럼 한 쪽의 패턴 크기나 모양을 의도적으로 다르게 만들어 적용하는 방식의 패턴에 의한 비대칭, 13 S/S와 같이 한 쪽 소매와 같이 옷의 구성 요소를 고의로 달지 않는 부재에 의한 비대칭으로 나타났다.

2. 미완료(未完了)

미완료란 어떤 행위나 일의 과정이 덜 끝난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서, 완료라고 용인되는 통상적 기준에 대비해 완성 정도가 미흡한 상태를 나타내는 상대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1960년대 이전의 옷

Table 2. Repetitive Plastic Characteristics of Asymmetric Design

Season	04 F/W	05 S/S	05 F/W	06 S/S	06 F/W	07 S/S	07 F/W	08 S/S	08 F/W	09 S/S
Design
Formative characteristic	deconstruction	decoration	deconstruction	decoration	hybridism	deconstruction	hybridism	pattern	deconstruction	decorative
Season	09 F/W	10 S/S	10 F/W	11 S/S	11 F/W	12 S/S	12 F/W	13 S/S	13 F/W	14 S/S
Design
Formative characteristic	decoration	decoration	pattern	hybridism	hybridism	pattern	pattern	absence	decoration	pattern

은 정형화된 형태로 제작되어 옷의 종류가 확실히 구분되었다. 또한 솔기나 밑단을 안으로 가게 하여 소재의 울이 풀리지 않게 봉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이와 대비해 의도적으로 기존의 통념적 기준과 다르게 제작 과정의 일부가 생략되거나 미완성된 경우, 옷의 종류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한 형태를 띠는 경우 이를 미완료된 디자인으로서 분류할 수 있는데, Kawakubo 컬렉션에는 창작 행위가 미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디자인이 항상 등장되고 있다.

창작을 하는 디자이너는 “평범한 사물을 비범하게 생각하고 관찰하는 태도를 띤다. 그 염으로써 사물과 자기만의 특별한 관계를 만들고, 그것으로부터 연유되는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자기만의 미적 관점과 창작 기법에 의한 특이한 형태로 표현”하는 방식을 찾는

다. (Y. Kim, 2012, p. 132)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Kawakubo는 어떤 방향성이 정해져 불변하는 기존의 통념과 질서에 대항하며 이를 탈피하기 위하여 기존의 완벽하고 정형화된 옷의 형태를 해체하며 재조합하는 자기만의 창작 방식을 반복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완벽, 완성, 정형, 정지, 불변 등과 상반되는 디자인 개념을 특이한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Kawakubo 스스로도 “미완성이 더 아름답고 완벽하지 않은 것이 더 아름답다고 느꼈다. 완성되고 결정된 아름다움은 재미없다” (J. Lee, 2011)며 본인의 창작 세계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Kawakubo의 컬렉션에 항상 등장하는 미완료된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04 F/W, 06 S/S, 09 S/S, 10 F/W, 12 S/S 컬렉션에는 옷의 형태가 한 번 고안되면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도록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동작이나 착용 방법에 따라 다

Table 3. Repetitive Plastic Characteristics of Uncompleted Design

Season	04 F/W	05 S/S	05 F/W	06 S/S	06 F/W	07 S/S	07 F/W	08 S/S	08 F/W	09 S/S
Design
Formative characteristic	atypicality	imperfect ion	incompleti on	atypicality	imperfecti on	incompleti on	transfigur ation	imperfecti on	imperfecti on	atypicalit
Season	09 F/W	10 S/S	10 F/W	11 S/S	11 F/W	12 S/S	12 F/W	13 S/S	13 F/W	14 S/S
Design
Formative characteristic	transfigur ation	incompleti on	atypicality	incompleti on	incompleti on	atypicality		imperfecti on	imperfecti on	incomple on

른 형태로도 변할 수 있는 가변(可變)적 비정형, 05 S/S, 06 F/W, 08 S/S, 08 F/W, 13 S/S, 13 F/W와 같이 형태를 온전히 갖추는 디자인이 아니라 구멍을 뚫거나 이음새를 고의로 터서 안의 내용이 노출되게 하는 비완벽, 05 F/W, 07 S/S, 10 S/S, 11 S/S, 11 F/W, 14 S/S에서처럼 옷의 중간을 잘라올이 풀리도록 두거나 마무리를 하지 않는 미완성, 그리고 07 F/W, 09 F/W와 같이 옷의 형태가 변화되는 과정을 한 디자인에 표현한 변모의 미완료 형태로 나타났다(Table 3).

3. 골계성(滑稽性)

패션디자인에서 추구되는 골계성은 인간이 갖고 있는 유희적 본성을 자극하여 마음을 열게 하고 친숙함을 주는 동시에 유희적 대상을 쉽게 기억하게 한다는 특징 때문에 창작의 도구로써 많은 디자이너

에 의해 추구되어 왔다. 해학적이며 유희적인 디자인은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주제를 비범한 방식으로 자극해서 낯설을 줌과 동시에 감동과 재미를 더해줌으로써 디자이너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기도 한다.

1920년대 엘자 스키아파렐리(Elsa Schiaparelli)는 초현실적 요소를 차용하여 낯설에 의한 유희를 추구하였으며, 1960년대 초반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은 여성 인체의 일부를 긴 드레스에 중첩시키는 기지를 보여주며 팝아트를 패션에 접목시키기도 하였다. Kawakubo 컬렉션에도 이와 같은 맥락의 해학적 요소를 다룬 디자인이 많이 등장되었다. 그러나 유희적 요소와 더불어 진지하면서도 기이한 분위기가 내포된 골계성의 추구라는 점에서 서양의 유머와는 차이가 있다.

Kawakubo는 사물의 위치나 용도를 바꾸어 차용하거나 크기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디자인, 또는 서로 다른 종류의 옷을 한 실루엣에 중첩시키는 디자

Table 4. Repetitive Plastic Characteristics of Wagghish Design

Season	04 F/W	05 S/S	05 FW	06 S/S	06 F/W	07 S/S	07 F/W	08 S/S	08 F/W	09 S/S
Design
Formative characteristic	displacement	juxtaposition		excess	superposition	amusement	amusement	superposition	excess	excess
Season	09 F/W	10 S/S	10 F/W	11 S/S	11 F/W	12 S/S	12 F/W	13 S/S	13 F/W	14 S/S
Design
Formative characteristic	superposition	displacement	excess	amusement	excess	excess	superposition	displacement	excess	excess

인을 통하여 우아함, 여성미, 기능성 등으로 대표되어왔던 서양의 복식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창작 세계를 구축해왔다.

04 F/W, 10 S/S, 13 S/S 컬렉션에서는 소매를 가슴 부위에 달거나 칼라를 옆구리에 다는 등 구성 요소의 기존 위치를 바꾸어 차용함으로써 낯설음 주었고, 05 S/S에서는 이질적인 두 요소를 대조적으로 병치시키기도 하였다. 그리고 06 S/S, 08 F/W, 09 S/S, 10 F/W, 11 F/W, 12 S/S, 13 F/W, 14S/S에서는 볼륨, 장식, 크기 등이 과도하게 강조되었고, 06 F/W, 08 S/S, 12 F/W 두 실루엣을 해학적으로 한 디자인에 중첩시켰으며, 07 S/S, 08 F/W에서는 유희적으로 여성의 바지 앞을 남자 옷처럼 터서 안을 노출시키거나 신체의 일부를 소재로 제작하여 옷에 부착하는 등 골계성을 띠는 디자인이 교차되며 반복되어 나타났다(Table 4).

4. 잡종성(雜種性)

Kawakubo는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 주제를 미리 설정하거나 이미지 보드를 만들지 않고 일상 중에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보면 갑자기 세세한 것이 이미지가 되어 시야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난데없이 전혀 관계없는 또 다른 이미지가 반드시 등장되어 창작의 원천으로서 작용된다고 한다. 이와 같이 관계없는 세 종류의 종자(種子)가 발아, 또는 더 많은 종자가 우연히 형성되어 디자인으로 탄생된다고 한다(“Rei Kawakubo”, 2013). 이런 까닭에 Kawakubo의 디자인에는 머리에서 신발까지 상관성이 별로 없는 많은 요소가 잡다하게 나타나 있다.

컬렉션을 분석한 결과 많은 잡다한 요소들은 뒤섞이며 하나의 디자인으로 완성되는 과정 중에 앞에서

Table 5. Repetitive Plastic Characteristics of Crossbred Design

Season	04 F/W	05 S/S	05 F/W	06 S/S	06 F/W	07 S/S	07 F/W	08 S/S	08 F/W	09 S/S
Design
Formative characteristic	miscellaneity	miscellaneity	mixedness	multilayering	mixedness	multilayering	miscellaneity	multilayering	mixedness	miscellaneity
Season	09 F/W	10 S/S	10 F/W	11 S/S	11 F/W	12 S/S	12 F/W	13 S/S	13 F/W	14 S/S
Design
Formative characteristic	multilayering	fragment	miscellaneity	miscellaneity	miscellaneity	multilayering		fragment	miscellaneity	miscellaneity

설명한 비대칭, 미완료, 골계성과 같은 조형적 특성도 중첩되어 표현된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여러 종류의 내용을 혼합하는 창작 방식은 우아함과 조화를 중시하는 디자이너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성이다. Kawakubo의 컬렉션에 이처럼 잡다한 형태가 등장되는 원인은 다양한 문화의 유입에 의해 문화적 혼란기를 겪으며 성장한 환경과 여러 옷의 해체와 조합의 반복에 의해 형성된 Kawakubo의 창작 세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04 F/W, 05 S/S, 07 F/W, 09 S/S, 10 F/W, 11 S/S, 11 F/W, 13 F/W, 14 S/S 에서는 많은 조형 요소가 잡다한 형태로 배열되어 한 실루엣에 표현되었고, 05 F/W, 06 F/W, 08 F/W 시즌에서는 다양한 옷의 구성 요소가 뒤섞여 하나의 아이템으로 혼성되어 나타났다. 그리고 06 S/S, 07 S/S, 08 S/S, 09 F/W, 12 S/S 에서는 여러 겹을 과도하게 중첩시켜 새로운 실루엣이 표현되기도 하였으며, 10 S/S, 13 S/S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파편 조각이 이어져 하나의 디자인으로 재구성되기도 하였다(Table 5).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지난 10년간의 Kawakubo 컬렉션에는 비대칭, 미완료, 골계성, 잡종성으로 요약할 수 있는 조형적 특성이 거의 모든 시즌에 걸쳐 교차되며 Kawakubo 디자인을 특정 짓는 핵심 요소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V. Rei Kawakubo 디자인에 내재된 일본의 미의식과 내적 의미

19세기 중엽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자국의 독특한 문화와 미의식을 유지하며 고유의 전통 복식을 착용하였었다. 그러나 20세기 개화의 급물살과 함께 복식의 서양화가 가속화 되었고, Kawakubo는 기모노와 서양 의복을 같이 입는 혼란기 속에서 혼성된 문화를 인식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해 나갔다.

Kitazawa(2011)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의 신체를 척도로 세계 인식을 시작하고 모든 사물을 대칭적으

로 파악하는데, 그 내용이 종족 주변의 환경이나 역사에 깊이 관련되면 그것은 더 없이 독자적인 것이 된다고 한다(Kitazawa, 2011). 이러한 점에서 볼 때 Kawakubo의 독자성은 서구의 문화가 유입되어 혼란스러웠던 민족적 환경과 경험의 축적에 의해 체화된 미의식의 영향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에서 살펴본 비대칭, 미완료, 골계성, 잡종성의 조형적 특징은 일본 고유의 민족성 및 미의식과 관련을 맺으며, 서구의 디자이너와 대비되는 Kawakubo 디자인의 독자성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조형적 특성이 구체적으로 일본의 어떤 미의식과 관련을 맺는지 그 내용과 의미를 문헌 조사를 통하여 귀납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비대칭과 와비(わび)

비대칭이라는 개념이 일본에 처음 등장한 시기는 9세기 헤이안 시대(平安時代: 794~1185)로서, 당나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덴표 시대(天平時代: 710~794)의 중국풍 대칭 문양과 대비되어 자생적으로 형성되었다(Matsuoka, 2008). “객관적 비교를 통해 탄생된 것이 아니라, 외국을 의식하면서 그 문화를 활용하여 또 다른 화¹⁾를 만들어가는 것을 더 즐기는 과정에서 탄생” (Matsuoka, 2008, p. 85) 된 것이다.

덴표 시대에는 쌍조문(雙鳥文) 또는 색조문(昨鳥文)이라고 하여 나무 양쪽에 새를 확실한 좌우 대칭으로 표현한 디자인이 유행했으나, 헤이안 시대에 들어가면 송식학(松喰鶴)이라 하여 소나무 가지를 물고 있는 학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거나 주변을 날고 있는 디자인으로 바뀐다. 이러한 디자인이 나오면서 좌우 비대칭은 크게 각광을 받게 된다. (Matsuoka, 2008, p. 89)

1) 화(和)-한국, 중국, 서양 등의 외국과 대비되어 일본을 지칭하는 표현

사학과 교수 “하야시아 다쓰사부로(林屋辰三郎)는 화양 문화²⁾는 비대칭 문화다”라고까지 언급하며 비대칭이 “일본문화에 결정적인 영향” (Matsuoka, 2008, p. 90)을 미쳤다고 하였다. 이 같이 좌우의 양, 질이 달라 불균형을 이루거나 또는 어느 한 부분의 부재에 의한 비대칭은 일본의 다도에서 추구하는 ‘와비(わび)’의 미의식으로 계승되었음을 문헌 조사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와비는 “‘불완전한 아름다움’을 의미하며, 조형적으로는 완성 이전의 단계, 완성된 것을 거부하기, 의도하지 않는 아름다움”(Esopo, 2013, p. 157)을 가리킨다. 또한 ‘와비’는 “흠룩한 상태에 대한 열등한 상태”(“Wabi”, n.d.)를 나타내며 “가난함이나 부족함에서 마음의 충족을 끌어내는 일본인의 미의식” (Cho, 2008, p. 167)이다.

비대칭에 의한 불완전과 불균형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미의식은 일본의 다도 문화를 정립한 다케노 조오 武野紹鷗: 1502-1555)와 센노 리큐(千利久: 1522-1591)의 일화에서도 찾을 수 있다.

좌우에 귀가 붙어 있는 꽃병의 모양은 너무나 완벽하게 대칭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균형이 잘 잡히고 완전했다. 그러나 균형이 너무 잘 잡혀 완전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 보이고 아름다움이 덜하다. 오히려 한 쪽 귀를 떼어내 균형이 깨져 불완전한 상태가 되면 더욱 아름답게 느껴질 것이다. (Yoon et al., 2000, p. 29)

이러한 다케노 조오의 생각을 마치 읽었다는 듯이 그의 제자 센노 리큐는 이미 꽃 병 한 쪽 귀를 잘라내고 흰 동백꽃을 꽂아 비대칭과 불완전에 의한 ‘와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기에 이를 감탄했다(Yoon et al., 2000)는 이심전심의 일화가 수백 년에 걸쳐 전승되고 있다. 이처럼 비대칭의 불균형으로부터 아름다움을 찾는 미의식은 일본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 당나라, 또는 서양과 대비되는 문화적 조형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Kawakubo 컬렉션에 항상 등장하는 비대칭 디자인은 일본의 독자적 문화가 형성되던 9세기 초의 창작 정신을 계승한 민족성과 ‘와비’의 미의식에 기초한 것으로써 불완전하거나 불균형의 형태를 통하여 형성되는 의도하지 않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완전하지 않고 일그러진 형태나 부족함 속에서 마음의 위안과 충족을 찾던 ‘와비’의 미의식은 결국 독창적 형태의 근원이 되었고, 시대적 사조에 이끌리며 서양의 디자인의 영향을 받던 Kawakubo를 서양 디자이너와 구별되게 하는 요소로 작용되었다.

2. 미완료와 유우겐(幽玄)

1981년 파리 컬렉션에 처음 참가한 Kawakubo는 걸감, 안감, 심지 등을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사용한 디자인을 발표하였다. 옷의 제조 과정 및 내부 구조를 드러낸 형태로써 패턴 제작, 가봉, 봉제의 모든 과정이 모두 끝나지 않은 상태를 완성된 옷으로서 선보였다(Minamitani, 2004). 이러한 미완료된 컬렉션에 대하여 사진작가 피터 린더버그(Peter Lindbergh)는 그동안 완벽한 재단과 봉제를 통하여 추구하였던 「이상적 여성미」에 대한 환상을 근본적으로 뒤엎은 것으로서, 지금까지 서양 패션이 제 안해왔던 고전적인 「아름다운 여성상」과는 전혀 이질적인 것(Nisiitan, 2012)이라 평하였다.

이와 같이 미완료된 디자인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미의식은 “헤이안(平安: 794-1191) 시대부터 무로마치(室町: 1338-1573) 시대에 걸쳐 대표적인 미의식으로 거론되고 있는 ‘유현(幽玄)’의 미의식”(Y. Kim, & Gaang, 2009, p. 98)과 관련이 깊다. “일본 가무극인 ‘노오(能)’를 통하여 유현의 미학을 추구하였던 제야미”는 “유현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통한 현재 그리고 현재에서 미래로 연결되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에 의한 상상력의 작용이 필요하다”(Y. Kim, & Gaang, 2009, p. 100)고 하였다. 피고지는 꽃이나 세상의 모든 사물은 어느

2) 화양 문화(和樣 文化)-일본 양식의 문화

한 순간에 완성되어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성과 쇠락의 여러 형태로 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음미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나가오 다케시(長尾 剛) (as cited in Y. Kim, & Gaang, 2009)에 의하면 “유현(幽玄)이란 여정(餘情)을 즐기는 예술적(藝術的) 미의식(美意識)을 의미한다. 그것은 지금 ‘눈앞에 있는 모습’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감춰져 있는 모습’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상상함으로써 감동에 깊이를 부여하는 태도와 관계가 있다. (Nagao, 2002, p. 117)

이처럼 ‘유우겐’의 미의식은 완료된 행위보다는 과정과 여정(餘情)에 가치를 두고, 완성된 사물보다는 생성과 변화를 내재하며 어떤 형태로든 변용의 여지가 상상될 때 비로소 공감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완성되고 결정된 아름다움은 재미없다며 거부하는 Kawakubo 컬렉션에 미완료된 디자인이 항상 등장하는 이유는 이처럼 그녀에게 깊이 내재되어 있는 민족성을 바탕으로 하는 ‘유우겐’의 미의식이 창작 세계의 기초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완료된 디자인은 옷의 일부가 덜 완성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비대칭의 불완전성과 교차점을 갖지만 불균형의 강조보다는 여정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Kawakubo의 미완료 디자인 개념은 Barthes, Derrida 등이 해체주의를 주장하였던 그 시점에 등장되었기에 해체 개념의 한 부류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그녀의 창작 개념에는 ‘유우겐’이라는 전통적 미의식이 작용되고 있기에 해체를 통한 부정과 탈피를 추구하는 다른 디자이너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Kawakubo의 컬렉션에서 등장되는 해학적이며 유희적인 요소는 보는 이에게 재미를 줄 뿐만 아니라 특별한 형태의 낯선 모습에서 느낄 수 있는 신비함을 더하며 감동을 주기도 한다. 옷을 형성하는 구성 요소의 위치가 바뀌어 달리거나, 옷 안에 또 다른 옷을 장난스럽게 덧붙이는 등 함의적인 사고로는 상상할 수 없는 비범한 형태의 요소가 등장되어 장난스러움과 기이함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 일본의 전통적 미의식에는 이러한 골계와 유머를 추구하는 ‘오카시(をかし)’라는 미의식이 있다. ‘오카시’는 “중세의 교겐(狂言)³⁾이나 하이카이렌가(俳諧連歌)⁴⁾ 등에 보이는 해학적이고도 풍자적인 측면” (C. Kim, 2007, p. 77)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모양, 재밌다, 익살스럽다,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모양” (Nakamura & Yufu, 1999, p. 1059)을 의미하며, “외부 세계로부터 받는 흥취나 감동으로, 지적이고 밝은 정감을 표현하는 미적 개념으로 성장해 나갔다” (G. Choi, 2007, p. 107). 그리하여 “무관심 속에 있었던 사물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것, 혹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것, 아니면 큰 의미를 발견하는 데서 오는 경이감, 신기함을 함축한 미” (Shin, 1996, p. 142)를 나타내며 일본 문화의 저변에서 생활에 활력을 주는 미의식으로 자리를 잡았다.

Yamamoto, M.(山本正男)는 “오카시의 본질적 요소는 골계성에 있다기보다는, “생조차도 즐거운 ‘아소비(遊び, ‘논다’의 뜻)로 여기는 경쾌한 기분을 가지고 그 흥기하는 생명력을 기존의 틀에 구속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그려낸다는 점에 있다. (Shin, 1996, p. 136)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오카시’의 미의식은 사물에

3. 골계성과 오카시(をかし)

3) 교겐(狂言)-무로마치(室町) 시대에 발달된 막간에 상연되는 희극

4) 하이카이렌가(俳諧連歌)-에도시대의 이후 발전된 시가(詩歌) 형식

대한 고정된 관념에서 벗어나 열린 관점으로 사물을 관찰함으로써 사물이 지닌 역사성이나 어느 순간 일방적으로 정해져 버린 기능성과 용도를 다르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의외적인 내용을 발견하여 장난하며 즐기듯이 대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정해진 규범이나 질서에 구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의식의 결과로써 나타나는 Kawakubo의 컬렉션에는 옷의 용도나 기능, 본래의 위치나 크기가 의외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서로 보완되며 조화를 이뤄야 할 내용들이 때론 무시되거나 과도하게 과장되고 중첩되며 단순히 유희로서만 해석되지 않는 기이함과 무거움을 내포한 채 Kawakubo 컬렉션의 골계성을 특별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골계성은 무뚝뚝한 디자이너로 정평이 나 있는 Kawakubo를 친숙하게 여기도록 만들고 동시에 컬렉션을 열린 마음으로 관찰하게 만들고, 보는 이로 하여금 일탈의 유희에 의한 자유감과 다양체로의 변화에 의한 잠재성을 느끼게 해주는 에너지로써 작용되고 있다.

4. 잡종성과 자교(雜居)

“모든 문화는 각각 고유의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최적의 방법을 통해, 긴 시간을 통해 축적되어온 것” (Gong et al., 2002, p. 143)이라 할 때, 일본은 섬이라는 특징 속에서 다양한 루트를 통한 새로운 문화가 유입되고 축적되어 왔다는 특징을 띠고 있다.

일본인은 새로운 사상과 조우하더라도 거기에 완전히 함몰되지는 않는다. 이것은 일본 사상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자 흥미로운 점이다. 즉 일본인은 낡은 사상에다 새로운 사상을 추구하여 이른바 사상의 재생을 추구해왔다. (Nagao, 2004, p. 24)

이러한 이유로 일본 문화에는 자국의 문화가 유입된 문화와 뒤섞이며 정착되어 정체를 알 수 없는

혼성 문화 형태가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의 지식인이나 사상가 등은 에도 시대 이후 개방된 문화를 통하여 유입된 문화가 자국의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그러한 유입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의미 있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Hirano(2004)는 “오늘의 일본 문화를 형성한 역사는 메이지 초기 이래의 일본 문화와 외국 문화의 접촉, 그에 따른 일본 문화의 변용, 즉 문화접변의 역사” (Hirano, 2004, p. 214)로 보았고, Maruyama(1961)는 『일본의 사상』에서 “메이지 시대 이후의 일본 문화를 근대 서구 ‘문명’과의 접촉방식으로 파악하였고, 일본 문화의 특성을 ‘잡거雜居 문화’로 규정” (Hirano, 2004, p. 215)지었다. 그리고 이보다 먼저 Kato (1955) (as cited in Hirano, 2004)는 「일본 문화의 잡종성」과 「잡종적 일본 문화의 희망」이라는 두 편의 논문을 통해 일본을 잡종문화라고 피력한 바 있다.

일본문화의 특징은 전통적인 일본과 서양화된 일본이라는 두 가지가 ‘깊은 곳에서 얹혀져 있어 어느 쪽도 골라내기 어렵다는 데’에 있고, ‘영국과 프랑스 문화를 순수종 문화의 전형이라 한다면, 일본문화는 잡종문화의 전형’이라 결론지었다. (Hirano, 2004, p. 215).

그리고 Maruyama(1961)에 의하면 “일본인의 정신상황에 본래 내재해 있던 정신적 무질서성은 제2의 ‘개국(開國)’에 의해 거의 극한” (Maruyama, 1998, p. 126)으로 치닫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입된 서양 문화가 자국 문화와 뒤섞이며 한 곳에 여럿이 거주하거나 장황하고 번거롭게 여럿이 뒤섞여 한 곳에 존재한다는 의미의 ‘자교(雜居)’의 형태가 지속되었고, 거기서 발생되는 잡종성이 일본 사상과 문화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반면 전통적 사상이나 미의식에 영향을 미친 ‘자교’의 부정성은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일본인의 특성, 그리고 “잡종(雜種)이라는 새로운 개성” (Maruyama, 1998, p. 127)으로도 작용되며 경계나 분류가 불분명한 형태의 창작품이나 잡종 문화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외래사상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전통적인 사상과의 갈등도 경험하지 않고 내면에 동거하도록 하는 성격은 「일본인론」에 의해 반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적당히 취사선택을 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일본인의 창조성으로 해석된다. (Kitazawa, 2011, p. 40).

이처럼 근대에 들어 형성된 ‘자교’의 혼합적 특성은 곧 하나의 창작 방식이 되어 잡종 문화를 양산하는 동력으로 작용되었고, 새로움과 창작성을 가능하게 하는 조형적 특성으로 자리를 잡으며 다양한 잡종 형태의 인공적 가공물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미의식으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Kawakubo의 컬렉션에도 이 같은 맥락의 잡다한 오브제들이 겹겹이 쌓이거나 뒤섞여 다양한 형태로 매 시즌 등장되었다. ‘자교’에 의해 형성된 창작 방식과 미적 관점에 의한 많은 요소가 이질적으로 합체되기를 반복하며 어느 범주로도 분류할 수 없는 수많은 잡종 형태로 표현되어 나타난 것이다.

Figure 10은 Kawakubo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본 미의식과 그 영향에 의해 나타난 조형적 특성을 도표로 나타낸 것으로서 서양 중심으로 분류된 복식의 경계와 범주를 벗어나 잡종 정신으로 독자성을 만들어 낸 Kawakubo의 디자인 세계를 잘 드러내고 있다.

V. 결론

Kawakubo는 1969년 ‘Comme des Garçons’이란 브랜드를 만들었고, 해체주의가 패션계로 확산되던 1981년 파리 컬렉션에 진출하여 서양 복식의 기초와는 다르게 옷을 해체하고 재조합하는 복식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 이후 현재까지 개성과 민족성에 기인한 독특한 창작 방법을 고수하며 세계 속에 유례 없는 독자적인 창작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패션의 변방이었던 일본에서 자라 어떻게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될 수 있었는지 Kawakubo가 성장한 시대적 환경, 디자인의 독자성을 이루는 조형적 특성, 그리고 디자인에 내재되어 있는 일본인으로서 갖고 있는 미의식은 무엇인지

Figure 10. Japanese Aesthetic Sense Appeared on Kawakubo's Design

고찰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Kawakubo는 전쟁의 격변기에 태어나 질서 정연한 환경과는 거리가 먼 폐허의 도시 속에서 파편이 난무하는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하며 유년기를 보냈고, 서구 문물이 전통 문화와 뒤섞이는 혼란기 속에서 성장하였다. 그리고 정규 디자인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불과 1-2년이라는 짧은 독학 기간에 이미 만들어진 옷을 분해하고 변형하는 방식으로 디자인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과 창작 능력의 제한에 의해 Kawakubo의 디자인은 이미 시작에서부터 균형과 완벽을 추구하는 제작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옷을 조각으로 해체하고 변형하여 새롭게 조합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필연적인 디자인 방향성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Kawakubo가 패션계에 등장했던 1970년대에는 옷을 미완성 형태로 제작하거나 해체해서 재조합하는 전위적인 패션 사조가 이미 Billy Bowers, Vivienne Westwood, Zandra Rhodes 등에 의해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나타난 Kawakubo의 초기 디자인은 위와 같은 시대적 조류에 편승된 유사 디자인의 한 부류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 인체 곡선을 살리는 서양 방식보다는 동양 전통의 직선에 의한 평면적 패턴 방식으로 옷을 제작했다는 특징을 띠고 있었다.

둘째, Kawakubo 디자인을 특정 짓는 조형적 특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컬렉션을 분석한 결과 비대칭, 미완료, 골계성, 잡종성의 형태가 거의 매년 등장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비대칭에는 해체, 장식, 혼종(混種), 이형(異形)의 패턴, 부재에 의한 불균형이 표현되었고, 미완료에는 비정형, 비완벽, 미완성, 변모적 형태의 특성이 나타나 있었다. 또한 골계성에는 전위(轉位), 병치, 과도(過度), 해학적 중첩, 유희가 표현되었고, 잡종성은 잡다함, 혼성(混成), 중첩, 파편화된 조형적 특성으로 나타났다.

셋째, Kawakubo는 개성으로 포장된 민족성과 전래된 미의식의 영향 하에서 창작을 하고 있었으며 그녀의 디자인에 나타난 비대칭, 미완료, 골계성, 잡

종성의 조형적 특성은 일본의 ‘와비(わび)’, ‘유우겐(幽玄)’, ‘오카시(をかし)’, ‘자교(雜居)’의 미의식과 관련을 맺고 있었다.

‘와비’는 완전하지 않고 일그러진 형태나 부족함 속에서 마음의 위안과 충족을 찾던 미의식으로서, 불완전하거나 불균형의 비대칭으로 나타나고 의도하지 않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유우겐’은 생성과 쇠락의 변화 과정에서 아름다움을 찾으며 완료된 행위보다는 과정과 여정(餘情)에 가치를 두는 미의식으로서, 미완료된 형태로 나타나며 생성과 변화의 상상에 의한 공감을 함축하고 있다.

‘오카시(をかし)’는 사물에서 의외적인 내용을 발견하여 즐기듯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미의식으로서, 익살스럽고 기이한 형태를 통하여 친숙함과 열린 마음을 이끌고, 일탈의 유희에 의한 자유감과 변화의 잠재성을 내포한다.

‘자교(雜居)’는 다양한 잡종 형태의 인공적 가공물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근대적인 미의식으로서, 잡다한 오브제들이 뒤섞이거나 이질적으로 합체되는 잡종 형태로 나타나고 수용과 취사선택에 의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일본인의 창조성을 의미하고 있다.

이 연구는 분석 자료를 확인 할 수 있는 지난 10년간의 컬렉션만을 분석하여 Kawakubo의 조형적 특성을 도출했다는 한계점을 갖는 반면, 컬렉션의 근원을 전통 문화와 미의식에서 찾아 고찰했다는 중요성을 갖는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한국 디자이너의 미의식을 고찰하는 후속 연구와 독자적인 전통 문화와 미의식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창의적인 디자이너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References

- Buxbaum, G. (2005). *Icons of fashion the 20th century* (2nd ed.). London: Prestel
- Cho, Y. (2008). *일본지식채널* [The Japanese knowledge channel]. Seoul: Yedam.
- Choi, C. (2006). *20세기 문화지형도* [Topography of 20th century culture]. Seoul: Ahn graphics ltd.
- Choi, G. (2007). *우리가 모르는 일본인* [What we do not know about Japanese]. Seoul: Kupress.
- Clancy, J. (1974). Native funk & flash. Retrieved January 30, 2014 from http://sweetjanespopboutique.blogspot.kr/2013_06_01_archive.html
- Elgort, C. Kurigami, K., Lindbergh, p., Moon, s., Sawatari, H., Weber, B. (1982). *Comme des Garçons 1975-1982 写真集* [Photograph collection]. *Natsume-books* Retrieved January 25, 2014 from <http://www.natsume-books.com>
- Derrida, J. (1996). *해체. La dissémination* [The dissemination]. (B. Kim, Trans.). Seoul: Moonye. (Original work published 1972).
- Esoope Publishing (2013). *내가 사랑한 세상의 모든 음식* [The food that I love from around the world]. Seoul: Esoope.
- Fukai A. (2012). *Future beauty 日本ファッションの未来性* [Future Beauty: 30 years of Japanese fashion]. Tokyo: Heibonsha,
- Gong, Ryu, Park, D., Park, J., Sung, Lee, B., Lee, W.,... Choi (2002). *새로운 일본의 이해* [A New understanding of Japan]. Seoul: Darakwon.
- Hirano, K(2004). *국제문화론* [The theory of international culture] (I. Jang, & D. Kim, Trans.). Seoul: Pulbit. (Original work published 2000).
- Kim, C. (2007). *일본 고전문학의 배경과 흐름* [The stream and background of ancient Japanese literature]. Seoul: Kupress.
- Kim, M. (2013). *복식미학* [Aesthetics in dress]. Seoul: Kyomunsa.
- Kim, Y., & Gaang, B. (2009). Traditional aesthetic sense found in design universe of Issey Miyake: Focus on beauty of "Yugen". *Journal of Fashion Business*. 10(2). 97-108.
- Kim, Y. (2012). A Study on the formation of a style: Focusing on the style of Iris Van Herpen. *Journal of Fashion Business*. 16(2), 124-137.
- Kitazawa, M. (2011). *일본 사상의 감성전통* [The tradition of sensibility of Japanese thought]. (Y. Kim, H. Kim, A. Jo, & G. Choi, Trans.). Seoul: Minsokwon. (Original work published 2002).
- Lee, J. (2011, February 19). Kawakubo Rei Interview, *Weekly BIZ*. Retrieved from <http://biz.chosun.com>
- Maruyama, M. (1998). *일본의 사상* [The idea of Japan]. (S. Kim, Trans.). Seoul: Hangilsa. (Original work published 1961).
- Matsuoka, S. (2008). *만들어진 나라 일본*. [Nihon to iu houhou]. (E. Lee, Trans.). Seoul: Phronesis. (Original work published 2006).
- Minamitani, E. (2004). *スタディ・オブ・コム デ ギャルソン* [The study of Comme des Garçons]. Tokyo: Littlemore.
- Nagao, T. (2002). *일본 사상 이야기* [Forty stories on Japanese thought]. Seoul: Yemoon. (Original work published 2000).
- Nakamura, S., Yufu, A. (1999). *角川古語大辭典 第5卷* [Kadokawa dictionary of archaic words Vol.5]. Tokyo: Kadokawa Shoden. p. 1059.
- Nisiitan, M. (2012). *相對性 ゴムデギャルソン論* [Argument of Comme des Garçons's relativity]. Tokyo: Filmart.
- Rei Kawakubo. Retrieved December 13, 2013 from <http://ja.wikipedia.org/wiki/>
- Rei Kawakubo by Cathy Horyn(NY Times).

- (2012). Retrieved January 24, 2014 from <http://ja.wikipedia.org>
- Remaury, B. (1996). *Dictionnaire de la Mode au XX sciele* [The dictionary of the fashion in 20th century] Rodhes, Z. (1977). Punk wedding dress. Paris: Edition de Regard.
- Rodhes, Z. (1977). Jersey dress with torn raw edges, safety pins and chains,. *Starsweare* Retrieved January 30, 2014 from <http://starsweare.com>
- Shimizu, S. NHK. (2005). アンリミテッド:コム デ ギャルソン [Unlimited: Comme des Garçons]. Tokyo: Heibonsha.
- Shin, E. (1996). ‘흥’과 오카시(をかし)의 美學 [Aesthetic of ‘Hung(Fun)’ and Okashi]. 古典文學研究 11. pp. 129-159.
- Steele, V. (1991). *Women of fashion: 20th-century designers*. New York: Rizzoli International Publication.
- Wabi. (n.d.). Retrieved January 05, 2014 from <http://ko.wikipedia.org>
- Westwood, V. (1977). Sex Pistols's T-Shirt by Vivienne Westwood & Malcolm McLaren Retrieved January 30, 2014 from <http://espacio-blanco.com/2012/04/06-anos-de-diseno-ingles-en-el-va/>
- Yoon, Park, J., Whang, Lee, G., Shim, Kim, S., ... Kim, J. (2000). *일본을 강하게 만든 문화코드* [The culture code that makes Japan strong]. Seoul: Namuwasup.

Received(March 25, 2014)

Revised(May 12, 2014)

Accepted(June 5, 2014)